



## 고창경찰서, 강호항공고 졸업식 선도·보호 활동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9일 강호항공고등학교에서 패트롤맘과 함께 전진한 졸업식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등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여성계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은 강호항공고등학교에서 졸업생 및 학부모에게 비행예방전단지와 물티슈, 불편 등 홍보 물품을 나눠주었고, 패트롤맘은 SPO와 함께 '플라로이드' 즉석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졸업식이 끝난 후에 학교 내 순찰활동을 하여 졸업 후 우려되는 뒷풀이 예방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졸업 후 해야하는 마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 中·고 학교를 중심으로 2월 졸업시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무주소방서, 전기 난방용품 안전사용 준수 홍보

무주소방서는 영하권 날씨를 맞아 난방기기 전기화재와 관련해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 난방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3대 전기 난방용품이란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열선을 말하며, 최근 사용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난방기구 옆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놓지 않기 △전선과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등이다.

또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전기장판 보관시 펴서 보관해야 열선 마모를 방지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주=전분선 기자

## 김제 백산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김제시 백산면(면장 최미화)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자 교육은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에 앞서 직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안전교육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을 청출하고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대학원생, 논문 성과

관문·주소민 박사과정생·우제 석사과정생, 학술대회서 최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명의 대학원생들이 학술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기초조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 1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게임학회 추계 학술 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 2팀 등 모두 3팀의 수상을 배출했다.

한국기초조형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디자인제조공학과 관문·주소민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조동민)과 산업디자인과 우제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조동민)은 '사용자 인지력 기반 AR 가이드 시스템의 시각 정보 계층화 디자인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게임학회에서 주소민 박사과정생은 '게임에서 정보의 복잡성과 인지 부하가 플레이어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우제 석사과정생은 'Roguelike RPG 게임의 시스템 설계 연구 - <재생 세포>와 <원기의 기사>를 바탕으로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Roguelike Elements in Mobile RPG Games-Focus on <Death cells> and <Soul Knight>)'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학원생들은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격려 덕분에 이번 학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며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는 3편의 수상 외에도 각 학회에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냈다.

조동민 학과장은 "대학원생들과 함께 노력한 연구의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디자인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광수 예술대학장(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은 "전북대 학교의 위상과 세계화를 위해 연구와 사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임실 지사면 손영선씨, 성금 200만원 기탁

올겨울 임실 지사면사무소에 따뜻한 기부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일 지사면에 거주하는 손영선(92) 씨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손영선 씨는 "추운 겨울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사면 우체국장을 역임했던 손 씨는 다문화 및 장애인 가정에 식사를 대접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어려운 이웃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손영선 씨의 선정은 지역사회와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분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김제 봉남면 유틸농장 이선영 대표, 성품 기탁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유틸농장(대표 이선영)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백미 10kg 100포, 라면 40개입 100박스(620만원 상당)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틸농장(축산업)은 해마다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기탁 물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로 벌써 23년째 꾸준히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선영 대표는 "추운 겨울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봉래 봉남면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유틸농장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한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박현 남원소방서장, 지엠에프 공장 방문 화재예방 현장점검



## 박현 남원소방서장, 지엠에프 공장 방문 화재예방 현장점검

남원소방서는 10일 박현 서장이 노암농공단지의 (주)지엠에프 공장을 방문해 화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지엠에프는 풀무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만두류 등 냉동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업체로, 지난해 고양 대형화재가 발생한 곳이며, 지역 농산물을 수매 가공해 농가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 내용은 △공장 제조시설 등 화재취약요인 점검 △소방안전관리 실태점검 △경영자의 화재예방 관심·의지 제고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확인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박현 서장은 "대규모 공장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계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심천지사 255-2404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8-9923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	--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진안 백운면, 영농 폐기물 재활용 중요성 알려

진안군 백운면이장협의회(대표 이정선)는 2023년 백운면 관내 재활용품 및 폐비닐 수거에 따른 장려금 중 일부를 50리터 쓰레기통부를 구입해 백운면민에게 배포했다.

배부 대상은 면내 거주 1,174세대이며 각 세대에 5~8,870매를 배부했다.

이장협의회는 쓰레기통부 전 세대 배부를 단순히 장려금 비용을 각 세대에 보상해주는 것을 넘어 주민들에게 영농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면민이 쓰레기 3NO 운동(안버리기, 안태우기, 안묻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포함했다.

백운면 이장협의회는 이밖에도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1,000만원을 이장단협의회, 체육회, 장학회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체육회, 장학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보순 면장은 "영농철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및 생활용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마을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앞으로도 쓰레기 3NO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살기좋고, 살고 싶은 청정백운을 만들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